



# “내 꿈은 후배들 위해 배우 정년 늘리는 것”

데뷔 60주년 특별전 ‘한국영화의 페르소나’ 여는 안성기  
‘바람불어 좋은 날’ ‘만다라’ ‘고래사냥’ 등 영화 인생 담야

올해로 연기 인생 60년을 맞은 배우 안성기는 “60년은 정말 실감 안 나는 숫자”라며 “연기를 오래 하는 것, 후배들을 위해 배우의 정년을 늘리는 것이 영화인으로서의 꿈”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영상자료원 상암 본관에서 데뷔 60주년 기념 특별전 개막식에 앞서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배우’라는 호칭에 대해서는 “팬클럽이 없으니 모든 국민이 팬이라고 생각하면 국민배우가 맞는 것 같다”며 웃었다.

안성기는 아역부터 시작해 60년간 약 130편의 작품을 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에 대해 “한 작품만 골라달라던 고민이다.

시대별로 의미를 따져보면 첫 번째로는 1980년도 이상호 감독과 함께한 ‘바람불어 좋은 날’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사회적으로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는 시대였고 정확하게 그 시대를 관통하는 작품이었다는 설명이다.

또 ‘임권택 감독과의 첫 만남인 ‘만다라’는 예술적으로 세계에 많이 알려진 영화였고, ‘고래사냥’은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많은 관객과 만난 첫 영화라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하얀전쟁”은 외대 베트남어과 출신인 내가 베트남전 참전 병사의 모습을 꼭 그리고 싶어서 정지영 감독에게 동영 소설을 영화로 만들자고 권했던 작품이다. 베트남전을 뒤집어본 영화라는 데 의미가 있다. ‘투캅스’는 순수하고 착한 역할만 하다가 망가진, 부패한 경찰의 모습 그리면서 연기의 폭을 넓힌 작품이고, 이명세 감독의 ‘인정사정 볼 것 없다’는 나이 들면서 주연에서 조연으로 바뀌어갔는데 이를 잘 연착륙 시켜준 작품이다”고 밝혔다.

그밖에 강우석 감독의 ‘실미도’는 한국 영화 사상 첫 1천만 관객 돌파 영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이준익 감독의 ‘라디오 스타’는 본인과 닮은 캐릭터를

연기해서 애정이 많이 간다고 했다.

“어렸을 때는 전혀 연기가 뭘지 몰랐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신문광고에 나왔던 천재 소년 안성기라는 말은 선전용이었지만 천재 소년과는 거리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연기를 잘한다고는 어리숙하고 어린애다운 모습이 오히려 더 좋아서 귀여워해 주신 것 같아요.”

안성기는 TV 드라마나 연극은 안 하고 영화 외길만 걸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드라마에 법인으로 1회 출연한 적이 있다. 50분 분량의 촬영을 이틀 만에 끝내는, 영화로서는 상상 못 할 스피드의 작업이었다. 그다음부터는 드라마는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영화는 많은 생각을 하고 사람들과 얘기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 또 관객들이 표를 예매하고 극장에 찾아가서 앉기까지 귀찮은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 캄캄한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감동시켜 달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많은 배우가 닮고 싶은 배우, 존경하는 배우로 꼽는데 대해 “한눈팔지 않고 영화에 계속 매진하고 스크린쿼터 문제 등 영화에 관한 일이라면 앞장서서 열심히 한 편이다”며 “1980년대는 영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좋지 않았다. 그때 영화 하는 사람도 좀 더 존중받고 동경의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작품 하나하나 선택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그 작품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영화를 선택했다. 그래서 영화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후배들도 좀 더 편안한 상태에서 연기하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안성기는 연기 외에 다른 일들도 병행하고 있다. “유니세프 친선대사, 신영균예술문화재단 이사장, 아시아나 국제난민영화위원회 집행위원장 등 세 가지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의

미래를 짚어주고 갈 젊은이를 지원한다는 데에 의미를 갖고 하는 일들이며, 나 자신에게도 큰 자극이 됩니다.”

이번 특별전 제목이 ‘한국영화의 페르소나’다. 인생 자체가 한국 영화 자체여서 붙은 수식어인 것 같다.

“영화인들과 영화가 좀 더 존중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성인 연기자로서의 삶을 출발해서 저 자신을 굉장히 다그치고 많은 자제를 하면서 살았다. 배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존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좋은 이미지를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거기에는 의도적인 것도 있었고 나 스스로의 성격이나 삶도 있었던 것 같다.”

그는 앞으로의 활동계획과 영화인으로서의 목표에 대해 “일단 오래 하는 게 꿈이자 가장 큰 숙제다”고 강조했다.

“배우의 정년을 길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나 자신을 위해서나 후배를 위해서나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쉬운 것은 선배님들이 일찍 현장을 떠난다는 것이죠. 선배나 동료들이 같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전부 사라지고 혼자 남는 느낌에 굉장히 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는 한국 영화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얻은 것과 잃은 것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얻은 것이 많다고 생각해요. 절대 파이가 커져 배우뿐 아니라 스태프의 삶도 나아졌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서로 마음을 섞으면서 가족 같이 일하는 모습은 많이 잃었는데 그런 게 가장 아쉽습니다. 대기업에서 투자하다 보니 나이 드신 분들이 도태된 것도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지금 현장에 남은 선배들과 밑에서 올라오는 세대가 공존하는 모습을 갖추는 것을 보고 싶어요. 제가 앞으로 하려는 역할도 그런 것입니다.”

연합뉴스

## ‘신화’ 에릭·배우 나혜미 7월 결혼

그들 신화의 에릭(본명 문정혁·38)이 7월 교제하던 배우 나혜미(26)와 화족을 밝힌다.

소속사 신화컴퍼니는 “에릭이 7월 1일 서울의 한 교회에서 나혜미와 결혼한다”며 “결혼식은 친지와 지인을 초대해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신화 멤버 중 유 부남이 되는 건 에릭이 처음이다.

그는 이날 신화컴퍼니 공식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19년 동안 신화의 멤버로 활동하면서 신화창조 팬 여러분들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았다”며 “앞으로는 더욱 안정된 마음으로 열심히 활동하면서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잘 살겠다”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3년 전 열애설이 흘러나왔으나 인정하지 않다가 올해 2월 다시 열애설이 불거지자 교제 사실을 공개했다.

에릭은 1998년 신화로 데뷔해 올해로 활



동 19주년을 맞았다. 그 사이 드라마 ‘블세’, ‘신입사원’, ‘무적의 낙산 요원’, ‘최강칠우’, ‘스파이 명왕’, ‘또 오해영’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도 활약했다.

2001년 영화 ‘수취인불명’에서 여주인공의 어린 시절 역으로 데뷔한 나혜미는 MBC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에 출연했지만 이후 뚜렷한 출연작이 없다.

두 사람은 스케줄을 고려해 짧게 신혼여행을 다녀올 예정이다. /연합뉴스



## 누적 관객 142만8천명 돌파

‘분노의 질주 : 더 익스트림’(사진)이 개봉 첫 주말 82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저수준 없는 1위를 달리고 있다.

17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12일 개봉한 ‘분노의 질주 : 더 익스트림’은 주말 이틀간(15~16일) 82만 9162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누적 관객은 142만8425명. ‘분노의 질주 : 더 익스트림’은 2001년 시

작된 ‘분노의 질주’ 시리즈의 8번째 작품으로, 사상 최악의 테러에 가담하게 된 주인공 도미닉(빈 디젤 분)과 그의 배신으로 팀 해체 위기에 놓인 멤버들의 대결을 그렸다.

같은 날 개봉한 윤재문 주연의 ‘아빠는 딸’은 같은 기간 16만908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2위에 올랐다.

디즈니 실사영화 ‘미녀와 야수’와 한석규 주연의 ‘프리즌’은 각각 5만8217명, 2만 8578명의 관객을 모아 3위와 4위를 차지했고, 할리우드 영화 ‘라이프’가 2만8578명이 관람해 5위에 랭크됐다. /연합뉴스

### TV 프로그램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재나 불발)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아침 쏘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생로병사의 비밀 (재) 55 감성애니 하루 2	00 하숙집 딸들(재)	00 월화드라마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재)	00 2017 한국민영방송대상 우수상 수상작
12	00 KBS 뉴스 12	20 생생정보스페셜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35 민방 네트워크 뉴스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5 TV쇼 진품명품 (재)	00 1대 100 (재)	20 헬로키키 동물교실	00 2017 한국민영방송대상 우수상 수상작
2	55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 (재)	15 텔레문스터 25 톱?목?키즈스쿨 55 응가 쇼나더 2	00 뉴스브리핑
3	05 명견만리 (재)	00 자동차부착성 위키 2 30 TV 유치원	25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재)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재)	00 MBC 뉴스M	00 2017 한국민영방송대상 대상 수상작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제보자들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0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아라! 30 생방송 TV블로그 고평지락
7	00 KBS 뉴스7 35 리얼토크, 날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닥터 365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25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24 55 1대 100	50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기획 창 격동의 세계 2부작 55 감성툰 고맙습니다	00 월화드라마 <안벽한 아내>	00 월화드라마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	00 월화드라마 <깃속말>
11	00 KBS 뉴스라인 40 천상의 컬렉션 (재)	10 하숙집 딸들	10 PD수첩	10 풀타는 청춘
12	35 인간극장 스페셜 (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MBC 뉴스 24 2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40 수목드라마 <자체발광 오피스>(재)	30 나이트 라인

### EBS 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재)	15:45 시계마을 티키토!	- 정빛빛 붉은 도시 페트라)
05:30 세계전문록 아틀라스 <빙하의 대어정 노르웨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김치오리라이프와 부추볶음)	16:15 방귀대항 뽕뽕이(재)	21:30 한국기행 <오지라도 괜찮아 - 멀리 불이 오는 소리>
06:00 한국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45 당동명 유치원1~2(재)	21:50 EBS 디큐프라이 <생과 사의 강 브리마푸트라 - 황금의 물줄기, 브리마푸트라>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7:15 열마 까투리	22:45 글로벌이벤트 찾아! 산티아고 23:35 메디칼 다큐 - 7요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 호스피스병동 외>
07:00 레이디 비그	12:10 미스터리 휴먼 다큐(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07:30 로보가 풀리	12:40 세상의 모든 범죄(재)	17:45 호기심나라 오기도	24:25 세상의 모든 범죄 <무식하면 용감한 이유는?>
07:45 출동! 슈퍼왕스	12:45 메디컬 다큐-7요일(재)	18:00 생방송 특!톡! 보너스나~4	24:30 한국영화특선(취화선)
08:00 당동명 유치원1~2	13:40 장수의 비밀(재)	19:00 너티니즈	
08:45 부릉!부릉! 브루마즈	14:30 레이디비그	19:30 EBS뉴스	
09:00 방귀대항 뽕뽕이	15:00 오솔 상차	19:55 극한직업	
09: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5:05 내 친구 아서	<단무지 공장>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20 우주탐험가 젯	20:50 세계테마기행	
09:40 금쪽같은 내 새끼(재)	15:35 모피와 친구들	<광야의 속목 이집트 요르단>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8일 (음 3월 22일 乙亥)

子	48년생 주된 것보다 부가적 가치가 오히려 클 것이다. 60년생 점점 줄어들어서 상당히 부족하니 속히 보완토록 하자. 72년생 두루 살펴보고 관심을 갖는 것이 용이해리라. 84년생 발상이 참신하다면 결과의 차이는 클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6, 28	午	42년생 안개 속에서 꽃구경하는 식이다. 54년생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된다. 66년생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 간발의 차이로 행운을 잡게 된다. 78년생 도움이 안 된다. 90년생 긴장하지 않는다면 농칠 수도 있으나. 행운의 숫자 : 76, 90
丑	49년생 처리 방법과 기교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61년생 상호간에 연쇄적인 관련성이 있으나. 73년생 자선이 될 만한 것이 보이니 놓치지 말라. 85년생 하루 종일 매달리더라도 결실은 미미하다. 행운의 숫자 : 33, 84	未	43년생 임하는 자세 따라 처지가 달라진다. 55년생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환되는 성국이지만 결과는 미천까지다. 67년생 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 있다. 79년생 임기응변이 절실할 때이다. 91년생 과신한다면 난관에 봉착한다. 행운의 숫자 : 50, 80
寅	50년생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면 성국이 달라지리라. 62년생 무의식적인 오류가 나타날 수도 있다. 74년생 의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낫다. 86년생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 임하자. 행운의 숫자 : 89, 40	申	44년생 분수와 현대를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가자. 56년생 잡는 것이 곧 덕의 근본임을 알라. 68년생 마음먹은 바가 그대로 형성될 수 있다. 80년생 거시적인 관점으로 조망해야 대의를 도모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6, 59
卯	51년생 말뚱의 소지가 있다면 아예 손대지 말라. 63년생 호혜 관계에 놓이면서 생산성을 띤다. 75년생 지리멸렬했던 소강상태를 벗어나서 조금씩 기반을 이룩하는 면모이다. 87년생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98, 52	酉	45년생 상대의 눈빛 속에서 많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57년생 계획한 바가 있다면 추진할 수 있는 찬스이다. 69년생 손발이 척척 맞아서 손조로움을 더 하겠다. 81년생 자신 있게 진행해야 제대로 성공하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16, 95
辰	52년생 전체의 판국을 섬멸한다면 훨씬 유리한 입장이 될 것이다. 64년생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76년생 원만한 관계의 형성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88년생 망심한다면 핵심에서 벗어나 외곽에서 곁들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3, 27	戌	46년생 부단한 탐색과 준비가 궁극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케 하리라. 58년생 불만을 감수하고 있으려면 길사가 펼쳐지리라. 70년생 특별함이 없다면 대동소이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82년생 극히 이례적이라 할만하다. 행운의 숫자 : 21, 61
巳	53년생 안정을 찾는 데는 일정 정도의 시일이 필요할 것이다. 65년생 예기치 못한 걱정거리가 생겼다. 77년생 행동에 장애를 줄만한 일이 일어난다. 89년생 서두르지 않는다면 해 지무는 과격의 처지가 될 것임에 변하다. 행운의 숫자 : 23, 08	亥	47년생 부수적인 것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59년생 때를 놓치게 되면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이다. 71년생 배려는 곧 경제적 이익이 되어 돌아오리라. 83년생 안타까움을 더하는 원인 요소가 발생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8, 0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경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